



스위스로 비즈니스 미팅하러 오세요!

스위스정부관광청, 스위스 MICE 론칭

세계 최초의 MICE 기구 1964 년 창설해, 53 년째 이어 와
최첨단 인프라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MICE 목적지로서 명성
스위스로 인센티브 여행을 보내 준다고?
스위스, 대단위 국제 회의도 소화할 수 있다. 유엔 관련 행사가 바로, 그 예

스위스정부관광청 한국사무소(대표-김지인 소장)는 스위스 MICE 인프라를 한국에 처음으로 공식 론칭한다.

스위스는 오래 전부터 국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그 노하우를 공유하며 성과를 축하하는 곳이자 전략 개발 및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하고 공유하는 장소로 각광받아 왔다. 아울러 관광대국에 걸맞는 호스피탈리티를 바탕으로, 그동안 집약된 MICE 개최 노하우를 통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등 스위스의 MICE 인프라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다보스 경제포럼을 비롯하여, 유럽연합 노동경제학자들의 연례회의 등 굵직한 세계적인 주요 미팅, 스포츠 이벤트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 컨퍼런스, 전시 등을 개최하며, 스위스는 MICE 목적지로서의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스위스정부관광청은 미팅과 인센티브 목적지로서 스위스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아로자, 바젤, 베른, 다보스-클로스투스, 앵가딘 생모리츠, 플림스-락스-팔레라, 제네바, 그슈타드, 인터라켄, 로잔, 루체른, 루가노, 몽트뢰 연안, 생갈렌-보덴제, 취리히 등 주요 15 개 도시 및 지역들을 중심으로 관련한 MICE 콘텐츠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스위스 MICE 는 1964 년 세계 최초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컨벤션 전담기구인 ‘Association of Swiss Conference Cities’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현재는 스위스정부관광청 산하기관인 SCIB(Switzerland Convention & Incentive Bureau)로 발전했으며, 현재 16 개국에서 스위스가 비즈니스 미팅 목적지로 자리매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컨퍼런스 개최지, 전문 이벤트 기획자, 현지 교통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스위스정부관광청 김지인 소장은 “ 스위스는 많은 국제기관이 모여 있고 이들을 호스팅하는 국가로, 풍부한 MICE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모든 시스템이 시계 바늘처럼 정확하게 돌아가는 선진화 된 스위스 MICE 인프라는 비즈니스 방문자들이 원하는 목표 역시 정확하게 달성해 줄 것이다. 아울러 스위스의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은 이들에게 비즈니스적 영감을 줄 뿐 아니라 휴식을 제공하는 최고의 블레저(Bleisure: Business+Leisure)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위스에서 MICE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스위스관광청 홈페이지 미팅 플래너 (MySwitzerland.com/meetingplanner) 메뉴를 통해 쉽게 제안서를 만들 수 있다. 클릭 몇 번이면 행사장, 여행 프로그램, 교통편, 가격까지 포함된 제안서를 완성하여 PDF 나 외부 링크로 공유할 수 있어서 여행사 MICE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툴이 될 것이다.



한편, 스위스정부관광청은 MICE 워크숍과 함께 별도로 주요 기업의 MICE 담당자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갖고, MICE 목적지로서 스위스의 매력을 본격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미팅과 인센티브 목적지로서의 스위스의 매력 10 가지

1. 유럽의 정중앙 Centrally located in Europe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에 둘러싸인 스위스는 타 유럽 국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과도 손쉽게 연계가 가능한 여행지이다. 파리, 프랑크푸르트, 밀라노 등 유럽 주요 도시와 스위스를 잇는 촘촘한 철도망 덕분에 이동이 용이하다.

2. 짧은 거리 – 다채로운 풍경과 문화 Short distance – variety of landscapes and cultures

스위스는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네 시간, 북단에서 남단까지는 세 시간이면 달을 수 있을 정도로 오밀조밀한 나라이다. 네 개의 언어와 문화권, 야자수에서 빙하까지 하루에 경험할 수 있는 스위스를 일컬어, “유럽이 꼭 들어찬 나라(Europe in nutshell)’라고 표현한다.

3. 과학, 관광, 친환경 부문의 세계적인 허브 International hub of science, tourism and sustainability

취리히공과대학(ETH), 로잔공과대학(EPFL), 생갈렌대학(HSG) 등 기술과학 분야를 주도하는 대학이 스위스 주요 도시에 자리해 있다. 스위스 지식 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높은 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4. 시계처럼 정확한 스위스 사람들 A Country working like a clock

스위스에서 파업걱정은 접어두자. 안정적인 정치 상황과 중립국의 지위 덕분에 스위스는 안전한 나라로 정평 나 있다. 요청한 사항이 오차 없이 그대로 실현되는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기대해도 좋다 .

5. 미팅과 갈라 디너를 위한 최신 인프라 State-of-the-art infrastructure for meeting and gala dinner

MICE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리노베이션. 신축으로 인프라를 강화하여 높은 퀄리티의 행사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설비가 순수한 자연과 맞닿아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6. 특별한 사교 프로그램 Unique choice of social programs

소 쪼ت 짜기 체험, 모닝 스키, 크루즈 선상에서 펼쳐지는 갈라 디너 등 무엇을 상상하든 스위스에서라면 가능하다. 그룹 사이즈에 관계없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7. 부가가치 Added value

유럽 최저 수준의 VAT(8%). 대부분 도시에서 제공하는 무료 대중교통 편은 스위스가 비싸다는 편견을 깨기에 충분하다. 또한 가격 대비 만족도에서 스위스를 넘볼수 있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8. 사계절이 매력적인 스위스 All Year destination

겨울에는 눈 덮인 원더랜드, 여름에는 산중의 신선한 공기, 봄, 가을에는 교통 체증이나 오염 없는 도시 여행 등 스위스는 사계절 내내 만족스러운 경험을 선사한다.



9. 국제기구의 요람 Hom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스위스의 전통적인 기질인 개발적 사고와 중립성 덕분에 UN, FIFA 를 비롯한 수많은 국제기구가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다.

10. 기관 방문 Technical visits

초콜릿 공장을 방문하거나 치즈 만들기 체험을 경험하고 싶다면, 혹은 전기자전거 제조사를 벤치마킹 하고 싶다면? 다양한 기관을 방문해 배워 보는 시간은 여행의 즐거움에 새로운 가치를 더한다. 이는 스위스를 방문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